dongguk UNIVERSITY
Dongguk Business School (MBA)

경영신문

The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제2호 2014년 2월 3일 발행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이영면 주간 여준상 편집장 신영은 TEL 02.2260.8886

동문 경영인과의 대담 DK메디컬솔루션 이창규 회장

"열정을 가진 젊은이라면 어디든 길이 있을 것"

좌측부터 김은영 기자,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경영59), 권윤환 기자, 김성원 기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룰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안쓰러울 정도로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경영학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문 경영인의 고견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7일 이창규 DK메디컬솔루션 회장을 방문했다. IMF와 세계경기침체 등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삶과 후학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이회장은 경영대학 1기생으로 1986년 동강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X-Ray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 최우수 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우수 경영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른 한편 지난해에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으로 1만 달러와 약정기금 1억원 중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

Q.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졸업 후 우연히 의료기기 쪽에 일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문적인 기술은 알지 못했지만, 사업에 소질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는 사람의 몸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작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1960년대 말의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했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도 의료기분야에 진출했지만 곧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고 일단 수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외국회사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직접 주소를 알아내고 서신을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외국어에 능통한 세대도 아니어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중구 소공동 번역소에 가서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첫 사업은 이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네요. 도저히 안되서 포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의 한 중견회사의 무역부 과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역상사에서 15년을 근무한 후에 다시 나와서 차린 회사가 바로 이 DK메디칼솔루션입니다.

Q. 기업에는 한 번씩 위기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IMF 때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나요?

저는 사업시작 전 15년간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건전 경영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만, 당시에는 경력이나 뒷배경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사업 다각화라고 하여 본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투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차츰 돈을 벌기 시작한 중소기업들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업에 집중하며 재무 건전성을 앞세웠고, 이런 점이 오히려 IMF 때의 위기를 기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지 면 안 내

한진수 교수의 새해덕담	2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1억 쾌척	3면
경영대 소식	4~5면
경영대 동문 동정·장학기금 기부자	6면
경영대학 교수 연구 업적	7면
제46대 경영대 학생회장 선출	8면
경영대 고시 정보	9면
DBS News 페이스북 활용 TIP	10면
외로운 삼인방의 학교생활 – 술자리	11면

“사랑하는 경영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전하는 새해 덕담

한진수 교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아왔다. 본지 기자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된 재학생과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덕담을 전하고자 한진수 교수(전 경영부총장)를 예방하였다. 경영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새해 덕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보람찬 한해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재학생에게 전하는 말

1.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라!

재학기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합쳐서 총 16개월의 방학이 있어요. 16개월이면 외국어를 배우거나, 전공공부를 남들보다 깊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견문을 넓히고자 한다면 세계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방학을 잘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의 차이는 대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생산적인 일에 몰두해서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2. 지성인의 기본소양을 갖춰라!

미국이나 서양의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있는 국가를 가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뒷사람이 오면 항상 문을 잡아줍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뒤에 올 경우에는 문을 잡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문을 잡아주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경영대 학생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3. 폭넓은 공부를 해라!

고교 시절 은사님께서는 제가 사회에 나갈 즈음엔 중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동양사학과에 입학했지만, 동양사를 공부하는 것은 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복수전공이 없어서 3학년 때 처음으로 경영학 과목을 청강하기 시작했고 졸업하면서 석사는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전공과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다면, 폭넓게 공부해보는 것이 좋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보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회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런 학생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전공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입학 후 자신의 인생관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졸업생에게 전하는 말

1. 중견기업이 기회다

제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탄탄한 중견기업에 가는 것을 권장해요. 일도 폭넓게 배울 수 있고 업무성과도 최고경영자에게 바로 알려지거든요. 대기업에 못 갔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에 가서 업무를 통해 인정받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자들에게 중견기업을 소개해줬는데, 잘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떳떳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프로의 자세를 견지하라!

졸업생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은 사회는 학교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온실이나 마찬가지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가 가능하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온실의 유리가 벗겨지는 순간부터는 항상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들이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의 경쟁보다 사회에서의 경쟁이 훨씬 냉혹해요. 실수한 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실수한 사람을 가차 없이 낙오시켜 버리는 게 사회거든요.

졸업하는 시점에서 그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의 느슨한 마음가짐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범기 기자, 권윤환 기자

▶ 1면에서 이어집니다.

Q. 요즘 대학생들이 공모전이나 외국어, 봉사활동 등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성적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여러 도전을 해보는 것이 사회에 나왔을 때 훨씬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이것이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서하는 일인가를 먼저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업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에 있어서 기술력이나 자본도 중요하지만, 향후 5년, 향후 10년처럼 단기간의 비전을 만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궁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 우물만 꾸준히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만 하자는 사람은 늘 보통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서 좋은 성과는 노력과 열정에 있다고 봅니다. 20%의 뛰어난 직원이 기업의 부가가치 80%를 생산한다는 ‘파레토(Pareto)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눈빛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국대 후배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기자, 김은영 기자, 권윤환 기자

(주)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동국대 MBA에 1억 원 쾌척

유능한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모습. 동국대학교 김희옥 총장(좌)과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우)

지난해 12월 3일 경영전문대학원 동문인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이 김희옥 총장을 방문하여 1억 원을 쾌척했다. 2011년에도 모교에 발전기금 1천 1백만 원을 희사한 바 있는 강태선 회장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학교에 감사하다"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에 김희옥 총장은 "경영전문대학원 발전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신 장학금으로, 회장님과 같은 전문경영인을 꿈꾸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은 국민훈장 모란장, 한국마케팅학회 올해의 최고경영자 대상, 제6회 명품창출 최고경영자포럼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을 공식 출범하여 산악인 유족지원 사업, 녹색환경 조성사업,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제1회 도충락 경영사례 경진대회 개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리더양성의 산실

제1회 도충락 경영사례 경진대회 수상자와 함께 한 도충락 회장(첫째줄 왼쪽에서 4번째)과 이영면 학장(첫째줄 왼쪽에서 5번째)

지난해 11월 28일 경영관 MBA202 강의실에서 '제1회 도충락 경영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경영전문대학원 6기 원우회장인 도충락 회장(도충홀딩스 대표)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MBA 재학생으로 구성된 4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가 진행된 2시간여 동안 참가자들은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각 참가팀들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의 경영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적 위인의 리더십을 분석해 현대 기업경영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이번 경진대회의 후원자인 도충락 회장은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울 때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1회가 시작한 것이니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열기가 있는 경진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창의적인 소통경영이 현 기업에 시사하는 바를 연구한 강주현 원우 외 3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범기 기자, 임상기 기자

KB국민은행 금융마케팅 과정 3기 수료

KB국민은행 금융과정 마케팅 과정 3기 수료생과 교수님들

본교 경영전문대학원과 KB국민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KB국민은행 금융마케팅 과정'의 수료식이 2013년 11월 23일에 MBA CEOroom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시작된 금융마케팅 과정 3기는 본교에서 마케팅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진과 타교 초빙교수진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총 8주간의 특별과정은 중간 및 기말시험, 팀 프로젝트 수행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 98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생 전원이 금융마케팅 과정을 수료했으며, 최우수상은 문승태 송도지점 부지점장과 황은희 서영업지원부 과장이 공동수상했다. 본 과정 수료자 중 4명은 2014년 봄학기에 MBA에 입학할 예정이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2013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동국대학교 MBA 선정

디지틀조선일보와 비즈니스앤TV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2013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을 공표했다. 본 행사는 기업과 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적 재산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13 올해의 히트상품에는 가전·디지털, 공공서비스, 교육, 금융, 문화·공간, 생활, 식품 등 총 7개 분야에서 100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됐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사랑받으며,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매 만족도가 높은 기업 및 기관이 엄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틀조선일보는 본교 MBA 과정이 국제경영대학 발전협의회(AACSB)의 인증을 획득한 점과 미국 텍사스대(UTD)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 2개의 정식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택사스대(UTD)와 MOU를 통해 미국 MBA 진학에 필요한 입학시험(GMAT)을 면제받고, In-State tuition의 적용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학비로 유학이 가능한 장점을 강조하며 선정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밝혔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동문 화합의 장 MBA 송년의 밤 성황리에 개최

MBA 재학생 및 동문들과 교수님들

지난해 12월 3일(화) 오후 7시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국대학교 MBA 송년의 밤 행사가 동국대학교 MBA 원우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영면 원장, 이춘호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MBA 담당 PD교수, 관계자,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기수의 회장들과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동문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과 도충홀딩스(주) 도충락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으며 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28일에 개최되었던 도충락 경영사례 경진대회에 대한 조광희 교수의 총평과 시상식도 거행되었으며, '이순신의 지도력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강주현 원우 외 3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부 및 3부 행사에서는 초청공연과 동문의 장기자랑이 열렸고, 시상식과 경품 추첨 행사가 이어졌다. **김범기 기자, 박준용 기자**

최첨단 금융공학 전문가 퀀트의 길을 가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임희찬 군

임희찬(경영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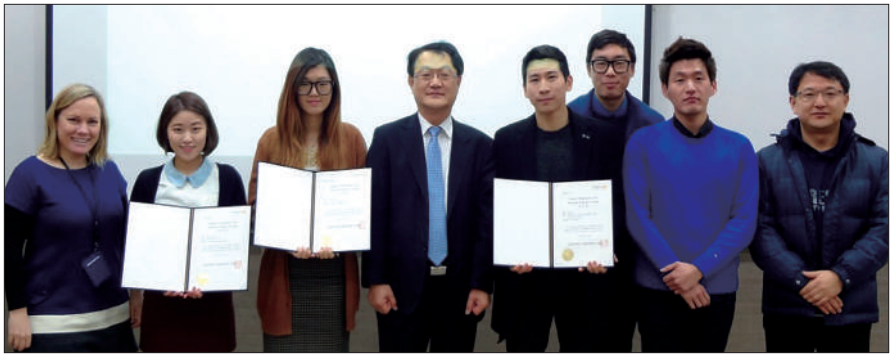
동부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금융센터에서 '2013년 제4회 동부금융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은 동부금융네트워크와 CFA한국협회의 후원 아래 동부문화재단(이사장=강경식)이 주관하며,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금융 및 관련분야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접수된 2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논문 심사를 통과한 최종 8개 팀에게 상이 수여되었으며, "증권사 ELS 운용 수익률 악화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에 대해 논문을 투고한 임희찬(경영07)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임희찬 학생은 논문에서 한국시장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의 순 마진율 감소가 변동성 하락에 따른 발행사의 ELS 베가 손실로 인한 운용수익률 악화에서 비롯되었음에 착안하여, ELS 순 마진율 감소와 관련된 발행사의 운용수익률 악화 원인을 금융 시장 변동성 국면 전환과 ELS 베가 헤지를 토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매뉴얼 더만의 My Life As a Quant를 읽고서 금융공학에 매료되어 석사수준의 금융공학 지식을 익히는 연합동아리인 U.FE.A에 가입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 교내에서는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금융수학 등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퀀트의 중요한 자질인 수리적 분석능력을 키웠다. 학교에서는 금융공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통해 금융공학 전공을 신설했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2013년도 2학기 English Presentation and Business Analysis Contest 개최


왼쪽으로부터 카린 교수, 추수민(경영11), 김민선(경영11), 이영면 학장, 김병철(경영정보11), 김은석(경영09), 이원대(경영08), 전진규 교수

지난 1월 16일, 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경영대학 English Presentation and Business Analysis Contest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경영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매학기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은 김민선(경영11) 양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병철(경영정보11)·김은석(경영09)·이원대(경영08) 군으로 구성된 팀 Bounce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은 추수민(경영11)양이 수상했다.

노창훈 기자, 임상기 기자

"경영대 후배들이 더 많이 합격했으면 합니다"

제22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윤상필 노무사

윤상필 노무사 (경영06)

지난해 10월 30일 제22회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우리학교에서는 재학생과 동문을 포함하여 9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서 경영대 출신 중 유일한 합격자인 윤상필 노무사(경영06)를 여의도에서 만나 HR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선,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법학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이영면 학장님의 수업을 수강하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고, 시험과목도 흥미가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법학 과목은 생소했지만, 교수님들께서 쓰신 교과서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했습니다. 수험서로 요령 있게 공부하지 않고 우직하게 공부를 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대 학생들에게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진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진로가 매우 넓어집니다. 기업의 인사팀에 입사도 수월한 편이고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노무사로서 커리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법학을 더 공부하고자 한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경영대 학생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후배님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합니다."

윤상필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기꺼이 돕고 싶다며, 추후 학교에서 설명회나 특강 등이 있으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바람대로 경영대 출신 공인노무사가 많이 배출되어 필드에서 협업을 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경영대학 동문 동정

2013년 가을~최근

삼성물산 고문 정연주(경영)

보험개발원장 김수봉(경영대학원)

대림비앤코 대표이사 부사장
강태식(회계)

한국남동발전 사장 허엽(경영대학원)

삼성전자 부사장 안재근(경영)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이인환(경영대학원)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전무
황인태(경영대학원)

한국얀센 이사 이주희(경영)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소장
이관영(경영대학원)

㈜IBK시스템 대표이사
황만성(경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윤양배(경영)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문순(회계)
대통령 표창 수상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계좌 : 국민은행 99999-3333-49 (예금주:동국대학교)
전 화 번 호 : 정동현(경영98) 02-2260-8992

경영대학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약정금액/기부금액] (2013.11 ~ 2013.12)

▷ **이창규**(DK메디컬 솔루션 회장, 경영59)
[228,484,000/128,484,000]
▷ **정연주**(삼성물산 고문, 경영69)[100,000,000/100,000,000]
▷ **배동기**(삼성물산 부사장, 경영76)[20,000,000/20,000,000]
▷ **동영회**(회장=권중근)[11,000,000/5,000,000]
▷ **권중근**(이메인텍 대표, 경영80)[10,000,000/4,000,000]
▷ **민홍기**(유엔아이 대표이사, 경영74)[10,000,000/4,000,000]
▷ **안재근**(삼성전자 부사장, 경영77)[10,000,000/4,000,000]
▷ **김상래**(성도GL 대표이사, 경영78)[10,000,000/2,000,000]
▷ **한성권**(현대자동차 부사장, 경영80)[10,000,000/4,000,000]
▷ **김억곤**(대원기계 대표이사, 경영70)[5,000,000/2,000,000]
▷ **김진억**(국민은행 고문, 경영74)[5,000,000/2,000,000]
▷ **홍석표**(前우리은행 본부장, 경영75)[3,000,000/3,000,000]
▷ **장경찬**(대성회계법인 회계사, 경영95)[2,000,000/1,000,000]
▷ **김희석**((주)메이드잇 대표, 경영02)[2,000,000/2,000,000]
▷ **김효영**(前동강시스타 부장, 경영82)[1,000,000/ 800,000]

MBA 장학금

▷ **강태선**(블랙야크 회장, MBA1기)[100,000,000/100,000,000]
▷ **도충락**((주)도충홀딩스 대표이사, MBA6기)
[25,000,000/10,000,000]

제공=대외협력실 정동현

2013년도 2학기 경영대학 교수 수상실적

성 명	제 목
성상현	고용노동부장관상 (여성고용 증진)
정 욱	Best Presentation Award (한국품질경영학회 우수논문)
권익현	우수 논문상 (한국소비자학회)
유창조	학술공헌상 (한국경제신문사)
유창조	학술공헌상 (한국소비자학회)
여준상	우수발표논문상 (서비스마케팅학회)
윤선중	한국거래소 KRX 파생상품 논문상 장려상
김경재	최우수 논문상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김갑순	최우수 논문상 (한국세무학회)

2013-2 연구비 수주 실적

성 명	제 목	과제 총액
이영면	'지속가능한 고용과 노동 포럼' 개최 위탁용역	15,330,000
이영면	근로복지지표 개발연구 (1단계 기초연구)	35,000,000
성상현	기업성장 패러다임 연구를 위한 CEO 심층 인터뷰	10,000,000
성상현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가능한 일자리 운영방안	49,400,000
여준상	[추경-LINC기술개발]참여유도형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개발	25,000,000
김경재	지능형 상황추론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모바일 상황인지 추천시스템[4/5]	34,020,000
합 계		168,750,000

2013-2 국제학술논문지 게재 현황

교 수	제 목	게재 학술지명
김현동	The effects of family-friendly practices and gender discrimination on job attitudes : the moderating role of supervisor sup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강우성	Brand-Specific Design Effects : Form and Function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강경훈	Fund expenses and vertical structures of the fund industry	Economic Modelling
여준상	The Persuasive Impact of a Scarcity Message in Advertising: A Two-Stage Processing Perspective	Journal of Advertising
여준상	Advertising Background-Picture Effects on Product Evaluation: The Moderating Role of Geographic Indication and Familiarit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유창조	The integrated mobile advertising model : The effects of technology and emotion-based evalu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김경재	Recommender systems using Ensemble Technique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김희석(경영) 동문이 기증한 백나혜 작가의 하늘너머(경영관 2층 전시).

대학·기업 금연 바람…

흡연자 이대로 교문 밖으로 내몰리나?

금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이 펼쳐지자 교내에 흡연이 가능했던 여러 장소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교내에서 자유로이 담배를 피우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급기야 금연 장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다.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이러한 행동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충으로 인해 불만이 가득하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았다.

금연 장소인 경영관 출입구

비흡연자의 고통‥ 흡연자들은 아는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동안 등한시된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확충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단순히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흡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대의 모 교수는 "연구실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경영대 앞 흡연지정 구역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담배연기가 그대로 연구실로 들어와 환기는커녕 창문을 여는 것조차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고통과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 흡연자를 배려해줘야 하는가?

흡연자들은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갈수록 커지는 불편에 불만을 토로한다. 담배는 기호식품의 일종으로써 흡연자에게는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흡연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의해 점점 제한을 받고 있기에 흡연자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더라도 담배의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금연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생긴다면, 양자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

△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도 금연 장려 - 흡연자 입사 불가능하기도

흡연은 비단 대학 내에서만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잇달아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흡연자는 채용 및 승진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웅진그룹, 금호아시아나는 전 사원 금연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웅진그룹과 삼성전자는 흡연자를 승진시키지 않는 인사정책을 펴고 있다. LG전자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금연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 하루는 전 사원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J그룹은 작년 7월 본사와 계열사 주변 1km 안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삼성전자는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금연서약을 하지 않으면 입사가 불가능한 기업도 있다. 이랜드그룹은 사내에서 금연캠페인을 열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면 포상금의 지급과 더불어 금연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도 대기업의 금연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구성원 간의 갈등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욱 기자

제46대 경영대 학생 정·부회장에 김정도·서욱진 학우 당선

지난해 11월 25~27일 3일간 경영대 학생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유권자 1336명 중 590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44.16%)한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김정도·서욱진(경영12) 후보가 기호 2번 문가람·이경원(경영정보10) 후보를 290표 대 277표(무효 21표, 오차 2표)로 13표의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 46대 경영대 학생 정·부회장으로 당선됐다.

"경영대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당선 되어 기쁘다"는 김정도 학우는 각오가 남달랐다. "타 단과대 보다 결집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 하나 되는 경영대, 화합하는 경영대를 만들고 싶다."라고 밝힌 김정도 학우는 내년이면 경영대 학생회 경력만 3년차다. 그는 "비록 어리지만 경영대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모두가 원하는 경영대, 워너비즈를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선거로 경영학과 학생회장에는 강인규(경영11) 학우, 회계학과 학생회장에는 황진웅(회계12) 학우, 경영정보학과 학생회장에는 홍완탄(경영정보10) 학우가 당선되었다.

제46대 경영대 학생회장 김정도(경영12, 좌), 부학생회장 서욱진(경영12, 우)

임상기 기자

현직 회계사가 말하는 합격의 공부법

삼일회계법인
양시애 회계사
(회계05)

경영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비즈마루 열람실을 둘러보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예전에 비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도 열람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본지 기자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비법을 선배 회계사에게 물어보았다.

Q.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만의 공부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PA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느 강사가 좋다더라', '어느 책이 좋다더라', '공부는 아침에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더라' 와 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사, 공부 스타일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부 스타일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Q. CPA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일정 시간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의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 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슬럼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일주일 내내 무리해서 공부하다가 한 번에 피곤이 밀려와서 슬럼프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슬럼프가 오지 않게 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주6일 체제를 유지 했었습니다. 쉬는 하루는 무리를 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Q.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매일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동현제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시반에는 남자 수험생들이 많아서 가끔씩 캐치볼이나 배드민턴 등 가벼운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되거나 놀고 싶을 땐 친구와 같이 남산에도 올라갔습니다. 남산으로의 산책, 이게 우리학교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캠퍼스 산책만 해도, 공부할 때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려서 건강관리와 집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CPA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남기는 응원의 말

올해 CPA 1차 시험이 2월 23일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것을 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을 기억하고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불안감은 잊고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현준 기자

국제재무분석사(CFA)를 주목하라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국제재무분석사)는 재무 분석 및 투자의사결정과 모든 직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격으로서, CFA협회가 엄격한 기준 하에 부여하고 있다. CFA 프로그램은 세 개의 레벨로 구성되며, 각 레벨은 매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된다.

Level Ⅰ은 일 년에 두 번 (6월, 12월)실시되고 Level Ⅱ,Ⅲ은 1년에 한번 6월에 실시된다. Level Ⅰ 투자 도구에 초점을 맞춰 총 240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Level Ⅱ는 자산 군 가치 평가에 초점을 맞춰 20개의 항목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LevelⅢ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초점을 맞춰 항목세트와 서술형 주관식이 구성된다. Level Ⅰ, Ⅱ, Ⅲ는 모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응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Level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 걸리게 된다.

CFA시험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Level Ⅰ 시험 등록 시에 학부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 경력과 대학 재학연수를 합하여 4년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파트타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CFA Institute에서 학사학위에 준하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접수는 미국 CFA Institute에서 응시원서를 받은 후 작성해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on-line등록도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등록비가 인상되므로 일찍 지원서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응시료는 교재를 포함해 $1,080으로 약 121만원이다. 응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평균 시험 준비시간은 30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영어가 유창한 수준이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CFA Level Ⅰ 시험은 학부 수준의 난이도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Level Ⅱ부터는 대학원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독학만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힘들다. Level Ⅱ의 수준이 Level Ⅰ에 비해 높지만, 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CFA한국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2013년 2차 시험 합격생 수는 8명으로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KAIST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전체 9위에 랭크되어 있다. CF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CFA한국협회(www.cfasociety.org/korea) 및 미국CFA협회(www.cfainstitute.org)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DBS News 페이스북 활용 TIP

1) 페이스북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경영신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경영대에서 나눠주는 지면 신문 받기, 둘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서 보기, 셋째 DBS News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링크된 페이지 손쉽게 클릭하여 보기!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면 신문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경영대 이모저모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이제 표현해 볼까요?

평소에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표현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영신문에서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사과, 고백 등 어떤 내용이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자단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진심을 경영신문을 통해서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3) 심심할 때는 경영대 SURVEY

집에 가는 길이나 학교 등교하는 길 등 자투리 시간에 기자단 페이스북에 접속하셔서 경영대 SURVEY에 참여해보세요. SURVEY는 매번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데 지난 창간호에서는 '이런 학생, 이런 수업 싫어요!'라는 주제였고 이번 2호에서는 조별 과제에 대한 SURVEY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SURVEY의 결과는 신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SURVEY라면 그 결과를 보는 재미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요?

4) 경영대 기자단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영신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기사가 실리면 좋겠다, 이런 점이 아쉽다, 등 기자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자단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영대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자단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조윤재 기자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광고홍보학과 11학번 임현경

복수전공하면서 반 경영학도의 길을 밟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좋은 선택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잊게 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현 교수님!

법학과 09학번 오우석

한 달 전쯤 경영관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을 거라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비실에 지갑을 맡기고 가주신 경영대 장민지 학우 분! 감사 인사와 더불어 사례도 못 해드렸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민지 학생을 비롯해 경영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www.facebook.com/dbsnews

경영학과 07학번 이원규

2013년 2학기에 이병철 교수님의 인사관리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창의적인(?) 연극, 상황극 발표 등 내성적인 저에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연극을 해야 하는지, 누가 언제부터 연극을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교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과 더불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박경욱 기자

재미로 보는 경영대 SURVEY

팀 프로젝트는 경영대 수업에서 빠질 수 없는 백미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이론을 실제 기업에 접목시켜서 연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학기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경영대 학생 41명에게 물었습니다.

1. 팀플 할 때 이런 멤버 제일 싫다.

- 21.95%(9명) 조모임 때 자주 지각하거나 빠지는 멤버
- 7.32%(3명) 과제 업로드 날짜 안 지키는 멤버
- 19.51%(8명) 조모임 때 집중 안하는 멤버
- 41.46%(17명) 자기 할 일 미루는 멤버
- 9.76%(4명) 과제 도중 과목 포기하는 멤버

2. 이런 사람이랑 팀플 하고 싶다.

- 19.51%(8명) (여자라면) 잘 생긴, (남자라면) 이쁜 학우
- 56.10%(23명) 평소에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
- 4.88%(2명) 학점이 좋다고 소문난 학생
- 14.63%(6명) 그냥 수업 같이 듣는 친한 친구
- 4.88%(2명) 교수님이 알아서 짜주셨으면 좋겠다

3. 팀플의 이런 점이 싫다.

- 36.59%(15명) 다른 사람들과 시간 맞추기 어렵다.
- 17.07%(7명) 여러 사람과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
- 21.95%(9명) 모여서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다.
- 9.76%(4명) 팀플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 14.63%(6명)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멤버도 같은 점수를 받는다.

4. 팀플의 이런 점이 좋다.

- 63.41%(26명) 새로운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이다.
- 26.83%(11명)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2.44%(1명) 이성 친구를 만들 기회가 생긴다.
- 7.32%(3명) 혼자 하는 것 보다 양이 적어진다.
- 0.00%(0명)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영대 학생들은 팀플을 할 때 '불성실한 멤버'에 대해서 가장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학생'과 같은 팀을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팀원의 성실성은 업무량 및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기회'라는 점에서 팀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팀원들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영은 기자

외로운 삼인방

복학생 · 편입생 · 취준생의 술자리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자리입니다. 이번 호에는 복학생, 편입생, 취준생의 술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공감과 재미를 위해서 인터뷰를 단문으로 각색하여 실었습니다.

- □ **복학생** 회계학과 10 김OO
- □ **편입생** 경영학과 06 김OO
- □ **취준생** 경영학과 08 정OO

복학생 처음 갔던 술자리는 동아리 술자리. 술자리에서의 사람들은 2/3 이상이 처음보거나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후배들과 친해지면서 학생들의 술자리에 적응하기 위해 마음먹고 왔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면서 친해져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 하지만 현실은 테이블 구석자리에... 나이 많은 고학년, 고학번들과 같은 테이블. 고학년, 고학번 테이블의 주제는 학점이야기와 취업이야기, 그리고 선배들의 결혼 이야기 등등...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군대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비군 0년차가 뭘 알겠느냐, 군인냄새가 난다 등등.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자연스레 후배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에 착석. 후배들의 테이블은 게임을 하는 분위기, 2년의 공백기 때문에 게임이 가물가물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 즐겁게 놀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두부게임? 홍합이 좋아? 포도사과 딸기 뱀? 내가 아는 게임은 지하철, 잔치기, 눈치게임, 더 게임 오브 데스 같은 게임인데. 더 서러운 것은 모르면 마시면서 배우란다..... 그렇게 삼십분 동안 술만 먹다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고자 했지만... 대화에 낄 수가 없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 후배들은 재미있다고 배꼽잡고 웃는데... 나는 하나도 안 웃긴데.... 다시 시작된 게임판... 게임을 몰라서 걸리고... 게임 감각이 떨어져서 걸리고... 그렇게 정신줄을 놓아가다가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

편입생 처음 갔던 술자리는 개강총회. 술자리에서의 아는 사람은 내가 구슬려서 같이 온 편입생 동기. 과에서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 학교에 대해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을 찾기 위해 사람들과 친해지려 마음먹었지만.... 하지만 현실은 테이블 맨 구석자리에... 내 옆에는 같이 온 편입생 동기.... 내 앞자리에는 조용하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다른 편입생들.... 개강총회 분위기는 시끌벅적하고 즐거운데 우리테이블은 조용히 소주잔만 비우네. 대화내용은 어느 대학에서 왔느냐? 어디 사느냐? 와 같은 기본적인 호구조사.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자연스레 다른 테이블로 착석하려 했지만, 들어갈 틈을 안주네. 때마침 쉬는 듯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근처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복학생... 아까 했던 호구조사의 데자뷰.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학교와 수업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기에, 이것에 만족하며 말없이 소주잔을 비우네. 어느 순간 사라진, 처음에 같이 온 편입생 동기. 다른 테이블에서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고 있네. 잘생긴 얼굴에 훤칠한 키. 나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좀 놀지... 나 버리고 혼자 간 편입생 동기를 뒤로하고 다음에 연락해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고 쓸쓸하게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네.

취준생 처음 갔던 술자리는 취업스터디 술자리. 얼굴은 자주 봐서 알지만 아직 어색한 멤버들. 취업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서, 뱅글뱅글 도는 세상과 마주치기 위해서 기대하고 왔지만... 어김없이 이어지는 취업이야기. 내 친구는 어디 취업했는데, 어떤 기업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데, 그 회사는 남자들을 훨씬 선호하는 것 같다 등등... 술이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취업이야기도 점점 더 나아간다. 처음에는 취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덧 회사에서의 승진이야기, 퇴직 나이 이야기 등등... 40대에 퇴직해서 치킨을 튀기며 제 2의 인생을 살기보다, 지금부터 치킨을 튀겨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모두를 설득하기에 충분하네. 매년 7,400개의 치킨집이 생기고 5,000개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며 더 이상 치킨의 미래는 없다며, 블루오션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술자리가 후끈 달아오르네. 어렸을 때 가졌던 세계정복, 대통령, 과학자와 같은 꿈과 야망들은 꿈속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세상. 취업 하는 것도 걱정, 취업해서도 걱정, 퇴직해도 걱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술 한 잔 목넘김과 함께 뒤로 삼키네.

안현준 기자

경영대 Fashionista

고민기
(경영08)

코트
솔리드옴므
90만원대
자켓
디자인워커스
10만 5천원
스웨터
더티셔츠 뮤지엄
6만원대
청바지
보세
5만원대
신발
닥터마틴
25만 8천원

"저는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고 누구나 그렇듯 저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스타일링을 하죠. 점점 프린팅이 많이 들어간 옷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리가 좀 얇은 편이라 이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상하의의 핏을 좀 신경 쓰게 되요.

저는 옷을 살 때 디자인뿐 아니라 재질도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에요. 평소 패션 분야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해두어서 그런지 텍스쳐가 주는 느낌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옷을 고르죠. 옷을 살 때는 무조건 유행에 맞춰 남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장점은 부각하고 결점은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영은 기자

경영관 2층 후문부터 장충단공원까지 새 통로 조성

지난달 경영관 2층 후문부터 장충단 공원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통로가 조성되었다. 이 통로는 장충단 공원의 게이트볼 장(舊 롤러스케이트장)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경영관 2층 후면 통로 입구에 휴게데스크도 조성되어 있다.

이 통로가 조성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장충단 공원은 학교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지여서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작년 초부터 불편을 겪는 경영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새로운 통로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임상기 기자